

# 순정이

부활 제2주일

제1독서 : 사도4,32-35

제2독서 : 1.요한5,1-6

복음 : 요한20,19-31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 강론

## 소리

###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최용준 신부/대야 천주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얼핏 지나칠 수도 있는 이 평화의 인사가 불안해 하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평화,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를 간직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소란스럽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화스럽지 못하다고 투덜거립니다. 때론 불안한 세상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부르짖는 마음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화를 외치면서 분노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분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화를 간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평화로울 줄 아는 사람은 남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를 간직할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평화를 지킵니다. 주위의 불안과 공포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진 못합니다.

평화를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선 평화가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부단한 노력도 실은 그 평화를 위한 것이며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억지를 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된 사랑은 아집과 욕망을 낳지만 참 사랑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평화, 미움으로부터의 평화, 절망으로부터의 평화, 우리는 평화가 아닌 것으로부터 평화를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평화의 인사에 우리도 똑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참 평화를 빌어 봅시다.

### 아직도 꽃샘추위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 나라, 이제 겨울은 가고 바야흐로 봄이다. 싱그러운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소식이 한창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팔십여리나 이어지는 전주~군산간의 벚꽃길이 장관을 이룬다. 올해는 꽃샘추위가 길어서 봄꽃이 평년보다 하루 이틀, 지난해보다는 사나흘 정도 늦게 필 것이라.

아무리 꽃이 곱다고한들 마음이 편치 않고서야 어찌 그것이 제대로 보일 것인가. 꽃샘추위가 있어서 더 스산한가? 바라고 바라던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잡풀들이 자꾸만 고개를 끝추세우니 속이 편안치가 못하다.

선물 때문에 여기저기서 눈치나 먹는 높은분네들, 국민의 세금을 제 주머니돈 쓰듯해도 되는거요? 이 짓이 (선거 때 돈을 못쓰게 되니, 대신 그 돈을 미리, 그것도 나랏돈을 쓰는) 새로운 정치풍토의 시범이요? 부하직원들 남의 집 담이나 넘게 한 장관님, 어찌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망신을 당하시는지... 설령 부하직원이나 아침의 몸짓으로 담을 넘으려고 해도 나무라고 말렸어야지... 어찌자고 애꿎은 경찰서장을 징계해서 구설수를 더하시는지... 범죄 예방과 단속의 최고 책임자, 특히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분이 이처럼 엉터리없는 짓이나 하시니, 이 판도 역시 백년하청이런가?

폭삭 썩어 죽어야 할 구시대의 망령들이 제대로 죽지 않고서 아직도 활갯짓을 하다니... 죽을 것은 철저히 죽어야 한다. 봄이 더딘 연유는 꽃샘추위의 시샘과 설죽은 망령들의 설침 때문이라. **ㄱ**

### 순정이 산책



「아직도...」

특 집

# 다시 유향검을 생각한다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오는 5월9일 치명자산 성당 축성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를 앞두고 호남의 첫 사도 유향검과 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삶을 조명해 본다.

하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 부르던 선인들은 초남 땅에 경전와우(耕田臥牛) 곧 전답을 가는 소가 누워 풍족한 음식을 먹는 형국의 혈(穴) 있다고 했다. 뜻인즉슨 이 마을이 큰 사람을 낳고, 자손만대 누워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을 낼 지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향검은 바로 이런 지세를 가진 초남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지체 높은 양반의 신분엔 만금의 재산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기름지게 살았고, 사람됨까지 소처럼 온순하고 강직했으니 경전와우혈의 정기를 타고 낳단 말인가, 지기(地氣)가 어찌니 저찌니 하며 산천이 인물을 낳는다는 풍수설이 기실 부질없는 말 같지만 사정은 말처럼 됐다.

그의 출신 성분은 당시 집권세력에 밀려 불우한 세월을 보내는 남인(南人)이었고, 탕평책을 펴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한다고는 했어도 반역항이라 하여 지역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호남인이었다. 또한 그와 살을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은 패망한 백제 유민의 씨알들로서 저항의식이 강했다. 이들은 미륵신앙에 의존하여 살며 하루 빨리 구세주가 나타나 썩어빠진 양반 세상을 변혁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가져다 주고 이씨왕조를 허물어 새로운 천년왕국을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저항문화는 유향검의 가슴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어 민중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읽으며 살고 있었다.

유향검은 현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권세도 부귀도 잊은 채 자신이 재벌이라는 의식이나 양반이라는 의식에서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품이 겸허하고 온유하여 양반들과는 학문과 행실을 닦으면서도 비천한 사람들에게 게까지 어울리며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권세는 사람들의 시기와 저주의 표적이 아니라 존경과 사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전교한 지 수년만에 여러 고을 주민의 반 이상을 천주교에 입교시킬 수는 없었으리라.

그의 도(道)에 대한 인식은 도는 확고하고 영원불멸해야 하며, 이 도를 터득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자기 한 몸은 온 천하가 태평성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초남리-유향검의 생가터

러나 당시의 주자학은 아니었다. 그래서 썩은 흙으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주자학으로는 새 세상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새로운 도를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자기 동류(同流)을 통해 천주교를 만나자 신천지를 얻은 듯 기뻐했다. 그는 천주교를 민족을 살릴 구급약으로 믿게 되자 주저없이 일신을 투신했다. 그리고 천주교와 고리를 맺고 있는 서양과학문명을 도입해서 국민민복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천주교를 내세 구원의 복음만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할 사회복음의 성격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는 민족 구원에 열광적으로 나섰지만 뜨거운 냄비는 아니었다. 그는 열정에 앞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고리를 터득하여 분수를 잃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시 한국 교회가 은둔 구원의 열정을 앞세운 나머지 가성직제도의 위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성사 집전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제지하고 나설 수 있었을까.

그는 신심(身心)을 하늘님께 바친 이 땅의 아브라함이었다. 그리하여 가족주의 사회에서 가문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큰 아들이 그 앞에서 부부동정 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세상의 헛된 영달을 물에 띄워 보낸 자유인이었다. 그의 정신을 깊이 아는 날에는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물이 계곡을 모여들듯 승암산 계곡으로 모여들 것이리라.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신부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 미용실**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특별 우대  
**동서가구 서부 대리점**

이건무(요한)

효자동 전북은행 앞  
☎ 224-8280~1  
222-8384

5분교리 ㉔

천국-영원한 행복

“천당이 어디냐구 가 보았느냐구요/지옥이 어디냐구 가 보았느냐구요/몰라요 모르지요 몰라도 나는 좋아요/어디나 님 계시면 천당이 거기고요/님 아니 계시면 어디나 지옥이지요/악마란 무어냐구 아예 묻질 마십시오/사랑 곧 없다면야 천사도 악마랍니다.”

고 최민순 신부님의 천국교리를 요약한 시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의 존재 양식이고 하느님의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천국이 지상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기에 달나라에 가는 일은 있어도 천국의 장소를 찾아 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어떤 어린이가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만약 축구가 없다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어린이가 축구시합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현세에서도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현세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은 어린이가 물었던 축구와 같은 씨앗이고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약속에 불과하다. 천국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뵈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없다. 구원의 약속이 다 실현될 것이기에 더 바랄 것이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랑의 충만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천국은 한마디로 지복직관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각자의 공로에 따라 지복직관의 투명도는 다를 것이다. 마치 시력의 차이처럼. 각자 그릇이 크고 작더라도 자신이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득히 채워지므로 그때는 질투없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세에서는 항상 어떤 아쉬움과 슬픔, 고통, 미흡한 기쁨이 교차되는 삶이기에 우리는 더욱 완벽한 충만을 갈망한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묵시 21,3)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1고린 2,9)

참고자료 : 삶의 저너머(VHS 25분) 빛모스섬의 계시(VHS 73분)  
사랑의 왕국(책) 묵시록(신약성서)

교구소식

1. 축! 견진 : 4월17일(일) 오전10시30분 소룡동 성당
2. 천호 피정 안내 : 4월14일(목) 주제-참된 행복, 강사-김태운 신부, 문의 73-6600
3. M.E. 50차 주말 피정 : 4월15일-17일 천호 피정의 집
4. 가톨릭 방송인회 : 4월11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4월17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6. 교구성소후원회 각 본당 임원단 모임 : 4월17일(일)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7. 제1기 레지오 간부학교 : 4월16일-5월7일 매주 토요일 오후3시-6시 전동 성당 교육관, 교육비-2만원(평의회에서 지출)
8. 로사리오회 성체신심 세미나 : 4월17일(일) 퇴재 공소
9. 수녀연합회 : 4월12일(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10. 어양동 성당 FAX 번호 안내 : (0653)831-4050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1)

수질오염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다 같이 입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수자원 보호에 참여합시다.

우리온들은 에너지 저금통  
우리온돌 전복총판

- 연료 50% 절약 24시간 뜨끈뜨끈
- 각종 보일러 시공 상담
- 강 우 금(대건 안드레아)
- 주 임 순(바울라)
- ☎ 78-1363, 1431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 일 생 수

-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체류하고 있는 천연 말갈리수
- 작은 예수회
- ☎(0652)225-4678
- 호출기 015-682-4678

꽃동네 성소의 날 행사

- 때 : 4.24(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꽃동네 음성 본원)
- 문의 : (0446) 78-9810~12

요심이 (1076) 김명오



감사드립니다.

부친(오금철 안토니오)을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는 주교님, 신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오 현택 가시미로 신부

여직원 모집

1. 모집 부분 : 회계원(○명) 2. 지원 자격 : 고졸이상 학력소지자(18-30세) 부기2급이상소지자 또는 회계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전주시내 거주자 또는 가능한 자 3. 제출 서류 : ①이력서 1통 ②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③졸업증명서 4. 제출 기간 : 4월16일(토)까지 천주교 호성신동협동조합 이사장 ☎ 241-1750

제2차 강연회

- 주제 : 그리스도인의 인간 발달과 영성발달
- 강사 : 아더 벨라(Arthur Vella, S.J)
- 통역 : 이한택 신부(한국 예수회 수련장)
- 1부 : 대상-성직자, 수도자, 일반신자  
일시-4.3(토) 오후2-6시  
5.1(일) 오전9시-오후6시  
장소-서강대 체육관  
참가비-25,000 (수도회양성자, 학생20,000)
- 2부 : 대상-성직자, 수도자  
일시-5.2-3 오전9시-오후6시  
장소-서강대 이나시오관 소강당  
참가비-30,000(양성자 25,000)
- 신청마감 : 4월25일까지 선착순  
문의 : (02)705-8230, 8355, 8666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장 이삼일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부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부활 제2주일(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있음)
1. 부녀회, 빈첸시오회, 소록도 방문: 14일 전 7시 출발. \* 저녁 미사는 없고 새벽미사 있음.
  2. 감사헌금: 양집례(마리아)-십만원.
  3.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2일, 어머니미사 후)  
③대건회(17일, 장엄미사 후)
  4. 돼지저금통 및 성미주머니 아직 내시지 않은 분은 사부실에 내주세요.
  5. 금주 청소: 중노6, 8반.  
처주 청소: 중노9, 10반.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 부활 제2주일! 오늘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있음.
1. 프란치스코 3회: 4월10일(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4월12일(화) 오후 8시30분.
  3. 성심회: 4월12일(화) 오전 10시30분.
  4. 울뜨레아: 4월13일(수) 저녁 8시.
  5.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 강귀선(이교나오) 100만원, 이덕재(배드루) 50만원, 김경선(베로니카) 20만원, 이강원(라파엘) 15만원, 창하순(루시아) 김말레(율리아) 2명 각 10만원, 진정순(마리아) 6만원.  
\*신입세대 115세대, 신입총액 8천9십3만원  
헌금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오늘은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③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④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⑤안나회-14일 오전 10시  
⑥성우회-17일 공식미사 후
- 축! 결혼: 17일 12시, 신랑-박종완(요한)군,  
신부-조현주(크리스티나)양,  
17일 오후 1시, 신랑-이정용(알베르토)군,  
신부-박소연 양.

##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형

- ◎ 부활 제2주일 \* 새로 영세하신 92명의 형제 자매님, 축하합니다.
1. 금주: ①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②자모회(전 10시)  
③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④일치의 모후Cu(후 2시)  
⑤요셉회(후 6시)  
⑥사목회(후 8시)
  2. 사라회: 12일(화) 오전 11시.
  3. 돈보스코회: 13일(수) 오후 7시30분.
  4. 구역반장 회의: 14일(목) 오전 7시.
  5. 처주: ①교구 성소후원회 각 본당 임원단 모임(전 10시30분 샌타) ②바녀의 성모Cu(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6. 부활절 행사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부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삽시다.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교구 2차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6일(토) 저녁.
  3. 예비자 교리: 매주일 오전 9시-수녀원.
  4.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7시30분으로.
  5. 주일미사 참여와 기도생활은 신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6. 주일미사를 권하지 말고 미사시작 10분 전에 성당에 옵시다.
  7. 금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8. 성소후원회 시순절 저금통: 봉헌해주세요.
  9. 제대꽃 봉헌: 안 아나다시아-3만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부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 페루 선교사를 위하여 사람의 헌금을 담아 보냅니다.
1. 반희장 연수회: 12일 10시30분, 가정방문 원하시는 만 신청.
  2. M.E 주말 50차 감승회: 15일~17일 친호 김춘기, 김금례 부부, 전생빈, 유급자 부부. M.E 가족들의 기도를 바랍니다.
  3. 가정 방문: 14일 10-4 전 9시30분, 10-5 후 3시, 15일 10-6 전 9시30분, 강남-2(2동) 후 3시.
  4. 회의: 자모회, 빈첸시오-13일. 임마누엘, 청년회-다음주일, 한빛회, 성체회-오늘 12시,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5. 축! 결혼: 신랑-전병오(방지거) 신부-정진영, 17일 12시, 피로연: 부궁화 회관, 신랑-서영만(요셉) 신부-이양미(안나) 17일 후 1시20분 행복 예식장.
  6. 평화기사회(가정): 14일 저녁 8시 사제관, 불참시 전화요망.